



해경스님의

### 경전읽기

법화경 ⑩ 여래수량품 제16

#### 두분의 석존

세 번째로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양약(良藥)을 병든 아들에게 남긴 채 여행길에 올라 객지에서 "죽었다"고 일리는 명의인 아버지라는 석존과, 아들이 완쾌된 것을 알고 귀국하는 아버지라는 석존과는 다른 차원의 석존이라는 점이다. 참으로 이 비유는 육체를 가진 역사상에 존재하는 유한(有限)한 생명을 가진 인간 석존과 육체를 갖지 않고 역사를 초월하여 영원한 진리(眞理) 법 상징으로서의 석존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구원(久遠) 실성(實成)의 석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석존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생신(生身)의 석존에 대한 신앙에서 진리를 몸으로 하는 고차원적인 석존에 대한 신심(信心)으로 몸을 바꾸(轉身) 전신(轉身)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 가득 채워져 있다. 즉 인격적인 석존 신앙에서 법(法)인 석존에 대한 신심을 권장하는 가르침이 이 비유에 실려져 있다. (법화경)의 설정에 의하면 이때의 석존은 여든 살에 가깝고 그림자적인 시점으로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그리하(왕사) 밖에 있는

이라 하여 공경하고 이 사(事)의 석존이 깨달은 법을 '이(眞理) 진리의 석존'이라 하여 신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의 석존은 육체를 가진 인간(人間)으로 우리들과 똑같이 멸하는 시간적인 존재이다. 지금 석존께서는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 그대로를 말한 것이어서 거짓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대로이다.

이(眞)의 석존은 사(事)의 석존과는 달리 육체가 없으므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구원(久遠)한 존재이다. '또 한 분의 석존'이란 이 불멸의 이(眞)인 석존을 말한다. 이렇게 사의 석존과 이의 석존이 같은 '석존'이라는 이름으로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 이 사(事)와 이(眞)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석존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예를 들면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1643년에 태어나 1727년에 사망했다. 그러나 인력은 뉴턴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뉴턴이 사망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여기에 임시로 인간 뉴턴을 '사의 뉴턴'이라 하고 그 만유인력을 인격화하여 '이의 뉴턴'이라 부른다면

### 사의 석존 육체가진 유한생명 존재

### 리의 석존 불생불멸 구원의 법신불

영축산에서 이 '수량품'을 설하고 있다. 석존으로서 유한한 자기에 대한 인격신앙에서 자기가 깨달고 또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법신심(法信心) 진리를 믿는 마음으로 차원을 높이는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마땅히 최후의 설법이어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 심원(深遠)한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선 '의사와 아들의 비유'를 설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아버지를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남는다. 석존과 제자들은 이 점에 대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한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의사가 방편을 사용한 것을 거짓말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고 제자가 대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도 아득한 옛날에 성불하여 지금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 그대로 말한 것이어서 거짓말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한다. 이처럼 <법화경>에는 두 사람의 석존이 등장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떠할까. 두 사람의 석존에 대한 관계와 내용이 서로 다름도 이해될 것이다. 이(眞)의 석존은 법의 인격체이므로 '법신불(法身佛)'이라 한다. 이 법신불은 모습이 없으므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수량품>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법신불인 석존이 눈에 비치는 인간인 석존의 모습(相) 상(相)으로 나타난(應) 응(應) 것으로 믿어 사(事)의 석존을 '응신불(應身佛)' 또는 '화신불(化身佛)'이라 부른다. 응신이란 몸을 나타내는 것. 화신은 법신이 육신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천태는 이(眞)의 석존, 즉 법신의 석존을 본지(本地) '근원'이라는 뜻의 부처님으로서 '본문(本門)의 석존'이라 하며 '문(門)'이란 총합(總攝)이라는 뜻으로 모든 진리나 가르침이 본문의 석존으로 통일 총합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문의 석존을 신심(信心)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 천태는 사(事)의 석존, 즉 역사상의 석존을 '적(迹)의 석존'이라 하는데 '적(迹)'이란 인간으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뜻이다. 법신의 석존, 본문의 석존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인격 신앙이나 수상승배를 초월한 '수량품'의 사상적인 깊고 오묘함이 여기 있다.

■ 무수정사 조실

도을 김용옥씨가 <달라이라마와 도을의 만남> 책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을, '아편쟁이들이 아편으로 도달하는 경지나 술꾼들이 술로써 도달하는 경지와 유사하다'고 표현했다. 또 오슬로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스님들이 참선만을 중요시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봉사에는 등한시한다며 '하회증생없는 한국선' 제목의 기고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불교계 밖에서 나오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대표적 선승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설명을 하실지 궁금했다.

"봉사는 남한테 도움을 주니까 장려해야 하고 참선하면 남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교에 대해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불자 아니라도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는 이들 많아요. 그렇지만 불자는 무어나 자기 비우는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워 부처님 법에 결합시키는 것이 불교입니다. 나를 비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 하는 일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치 있고 의미있는 일을 하기에 그 일이 즐겁습니다. 그러니 남을 돕는 일이나 봉사가 의무가 아니라 신이 나고 보람찬 일이지요. 착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비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우스님도 김용옥씨가, 산중에 가부좌 틀고 참선에 열중하는 스님들과 저 태릉선수전에서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열중하는 것과 무어 다를 것이 있느냐고 말한 기사를 읽으셨다고 했다. 스님은 그 사람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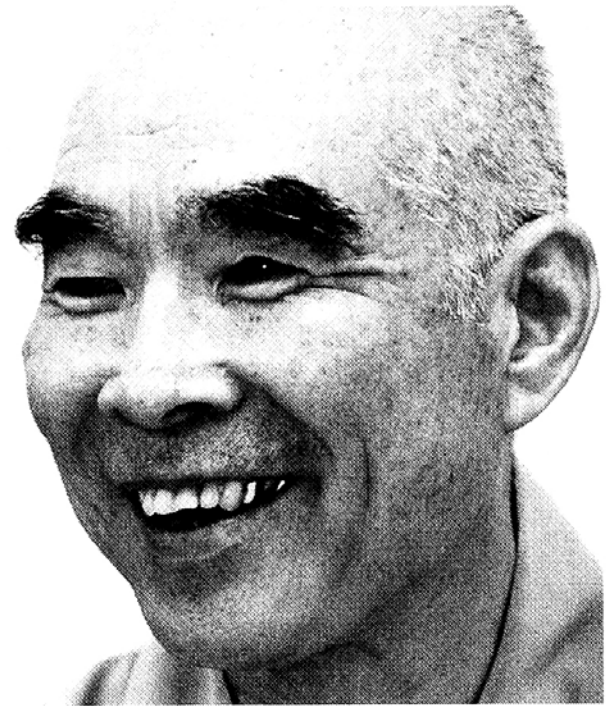
"불교는 자기 비우는 수행이 요점이예요. 자기를 계속 비워서 간단(簡便)없이 지속해 가는 수행을 삼매(三昧)라고 합니다. 삼매를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이 수가 없어요. 삼매란 자기 비우는 의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모든 만물이 연기(緣起)로 존재했었고 태어난 후에도 그렇게 존재해 있다. 여래가 멸한 후에도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연기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연기 원리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을 '도인(道人)'이라 그러지요. 스님들이 산속 도량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연기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수행의 결과가 어찌 수행자 자신에게만 이득이 될 수 있겠나. 달은 하나지만 천강(千江)에 비쳐 천 개의 달이 빛나듯 한 사람의 수행력이 수많은 대중들에게 회향되어 정신적인 혁명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고우스님은 기복신앙을 멀리하고 자기비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신다.

"우주만물의 존재 원리인 연기(緣起)법을 알아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도(道)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게될 때 이기심이 없어지고 저절로 공심(公心)으로 살게 되지요. 요즘처럼 이기심과 경쟁이 만연된 사회에서 불교야말로 수행을 통해 불국토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산속에 앉아있는 것보다 저자거리에 나가 선행(善行)을 하라는 얘기는 불교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요. 보통 사람들은 선행을 노력이나 의지로 하고자 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수행을 해 연기의 이치를 체험하게 되면 선행이나 봉사가 따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동으로 행위 자체가, 나도 즐겁고 남에게도 좋은, 선행이 되고 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참선이 어렵다고들 하던이다. 오랜 기간

# 자기 비우는 공부



◇고우스님은, 기복신앙을 멀리하고, 불교의 핵심사상을 알아 자기 비우는 공부에 주력하라고 강조하셨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도 공부진척도 없고 망상만 피어오른다는 사람도 꽤 된다. 왜 어려울까.

"절에만 오래 다니면 필요요. 부처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 법을 깨닫기 위해 태자 자리도, 왕궁도 내 버렸어요. 일체의 세속적인 모든 부귀영화를 버렸지요. 그만큼 이 법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속적 행복의 조건들을 버릴 수 있는 가치있는 것이 부처님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아직 그걸 모르고 있으니 잘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법인데 우리가 이 법을 체득하기 위해 무엇을 던져버렸습니까? 이해를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왜 공부 안되겠어요? 그만큼 이해도

고우스님은?

### 40여년 참선정진, "행자"

고우스님은 1937년 성주(生州)로 20세때 고향을 잃게 되어 자신의 의지로 병을 고치기 위해 절에 왔다가 출가했다. 스님은 58년 청암사에서 서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3년 법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출가후 40여년동안 불암사 출사사 금명사 용주사 각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참선정진을

## '적적성성 삼매' 성취 불교수행의 특징 연기 알면 모든일에서 가치·의미 발견

못하고 모르니까, 모든 상태에서 공부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안된다든 사람들을 대해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속적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말로는 부처님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부귀영화를 좇고 있다는 것이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니 아무리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도 될 일이 없다.

고우스님은, 출가한 스님들조차 세속적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계종 스님이 1만명 가량 되는데 과연 이 법을 이해하고 법의 가

치를 알고 승려노릇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부처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몇 명 보지 못했다고 하신다. 산사에 계신 스님마저 제대로 된 수행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한국불교가 도망치는 일보다는 불집주의로, 세속화로 치달고 있는 근본 이유는?

"기복불교 때문입니다. 기복적인 사고를 하면서 승려노릇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기복불교가 뭔지 아니까?" 입시 합격, 건강, 재물, 승진 등등을 간절히 부처

## 불가의 비법과 선인의 비전을 합방한 기적의 신물질!

"화림한방화장품"은 자연의 순수 한방약재를 주원료로 하여 고대 동양 미인들이 애용하던 주안술을 이용하여 당사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출원 준비중인 제품이다. 생약성분에서 추출한 기적의 신물질 "전단물질"이 미백효과, 피부 노화방지, 기미 및 각질제거, 주름제거 등 각종 피부고민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주며 모든 여성들을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 부드럽고 보습보습한 피부, 항상 촉촉히 젖어 있고 윤기있는 피부로 바꾸어 준다.

#### 출시 품목 (화장품)

- ◆ 안방에센스 크림 ◆ 안방베이스 크림 ◆ 안방미백크림
- ◆ 안방 아이크림 ◆ 안방 영양크림 ◆ 안방 밀크, 스킨 로션

#### 출시 품목 (비누)

- ◆ 서시안방비누(여드름 제거용) ◆ 옥용안방비누(피피 제거용)
- ◆ 수다리안방비누(미백용/클린싱 크림외과)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서 화장품 및 비누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주) 화림한방화장품  
www.hrcos.com

##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화림한방바이오"의 제품들은 불가 선사의 문중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제외 구증구복"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은 식사를 즐기면서도 살을 줄일 수 있고 요요현상이 전혀없으며 다이어트 최대 난제인 복부비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장을 청소하여 인체의 체지방을 제거함으로써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하며 몸의 가분함을 만끽할 수 있다. 선식은 성인용을 위한 건강식, 청소년을 위한 영양식, 유아를 위한 이유식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새로운 개념의 선식이다. 향은 천연향으로 제조되어 악취제거,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여 제사용으로 뿐 만 아니라 가정, 사무실, 고시원 등 일상 생활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

#### 출시 품목 (식품 / 향)

- ◆ POINT24 - 최상의 다이어트 식품(식사를 즐기면서...)
- ◆ 달마선식 - 다이어트 식품 겸용 건강간식
- ◆ 화림비향 - 새로운 개념의 향, 먹을 수 있으면서 피우는 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서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주) 화림한방바이오  
www.hrbio.com